

법정 공방 속 기약없는 어등산 개발

소송 업체 “대법까지 가겠다”

민선 7기내 재개발 사실상 물 건너가 내달 10일 1심 판결 결과에 촉각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해결을 장담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2005년 첫 개발계획을 밝힌 지 15년이 지났지만, 민간사업자와 소송에 발목이 잡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로 예정된 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역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업체측은 만약 패소하더라도 항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가 승소 여부를 떠나 민선 7기 내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은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적법성과 이행담보금 48억 원의 반환 여부 등을 놓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서진은 당초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500억원 규모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스스로 공모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일시 납부

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형적 도시개발 사업인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등은 직접 공사비를 모두 제외하고도, 1% 수준인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이행금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광주시도 지난해 3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모지침에 ‘민간사업자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선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 제3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총사업비의 산정)을 준용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명시까지 했다.

광주에서 공모지침으로 제시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 등 (8종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는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 등으로 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공모 기준에 따라 서진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협상과정에서 총사업비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물론 특급호텔 등 모든 건축 공사비를 포함했다.

서진은 당시 공모지침 기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비를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최대 100억원 안팎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예상했으나,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 5396억원에서 토지매입비 570억원을 뺀 4826억원의 10%인 482억6000만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시행 의지가 강했던 서진은 당시 절충안으로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등을 놓고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전경. 1심 선고일은 오는 12월 10일이다.

광주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민간투자법에서 각 단계별 사업이행 보증을 허용하는 조항 등을 들어 광주시에 3단계 분할 납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공모 지침에 분할납부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482억 6000만원을 일괄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진이 거부하자 결국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서진건설은 또 광주시가 계약 최종 단계에서 공모지침에도 없는 협약이행보증금 48억원을 받아낸 뒤 되돌려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는 현재까지도 확고하다”면서 “이러한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며, 선고 이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영록지사 본예산 9조원 시대 내년 전남도정 방향 제시 도민 안전·서민 생활·일자리 창출·성장 동력 확보 역점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민 안전,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강화 등을 2021년 전남도정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립과대학 및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 탄소중립 추진 원년 선포,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3대 핵심사업과 블루 이코노미, 도민 행복 시책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김 지사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9조2000억원 규모의 2021년 전라남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새천년 전남의 발전전략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관련 예산을 확보한 만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각오다.

블루 에너지는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화 플랫폼 구축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본격 운영 ▲한국에너지공단 캠퍼스 상반기 내 건립 등을, 블루 투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마한역 사문화권 정비계획 국가계획에 반영 ▲도립미술관 개관 ▲남도의병역사공원 건립 등을 구체적인 과제

로 삼았다. 블루 바이오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청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으로 면역·세포치료와 바이오 의약품 산업 선점 ▲국가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백신 개발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예산 확보와 착공에 중점을 뒀다.

블루 트랜스포트는 ▲미래행비행체 실증 테스트 베드를 조기에 구축, 앵커기업 유치 ▲2023년 완공 ‘무인기 특화산업단지’ 내 장업 유도 ▲e-모빌리티는 2023년까지 9000대 보급 등이, 블루 농수산은 ▲전남 농산물의 물류·유통 종합플랫폼인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구축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소 및 체험·교육단지 유치 총력 ▲전국 최초로 마른김 품질관리제를 도입해 김 수출 3억 달러 프로젝트 달성의 교두보 마련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불굴의 호남정신을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로 고통 받는 도민들께 온기를 전해드리고, ‘지역의 100년 대계를 준비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18 단체 “청남대 전두환 동상 존치철폐 직접 철거 나설 것”

동상 높혀 놓는 방안도 제시

청남대 관람 거부운동 검토

‘5·18 학술주변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24일 “5·18 광주학살 주변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청남대 내 동상(사진)을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의 동상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살인·악행을 하고 반란으로 권력을 잡아도 대통령만 되면 동상을 세워 기념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남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전씨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학살 반란자의 동상을 세워 함부로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 한 것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가한 것”이라며 “행동하는 양심 A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씨와 노씨의 동상 처리 방안도 제시했다. 동상을 제거하는 방법 외에도 현 동상을 높혀 놓는 방안, 몸의 일부만 또는 전신을 15

도 속여 놓는 형태로 현 동상을 변형하는 방안 등이다.

이렇게 변형된 동상 옆에는 반드시 5·18 진상과 두 사람의 죄목을 적은 설명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이단 말까지 동상 처리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철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청남대 관람 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상이 있는 청남대는 전두환 집권기인 1983년 건설돼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반에 개방됐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 위해 초대 이승만부터 이명박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을 세웠다.

자신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20분께 청남대 내 전씨 동상의 목 부위 3분의 2가량을 쇠톱으로 자른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2020 전남콘텐츠코리아랩 브랜드 웹툰

전남콘텐츠코리아랩과 함께한
9인의 전남 루키 작가들의
9가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권영진 친목술사 사립비	나이의 SOYO 욕아 울기	조성주 · 그림
사피엔스 · 스텝	미성 · 그애	플래그십 · 태산 페에 영희 · 한비
HUNP · 피가레스트	달빛 아코 * 유우 어스틀	하루리 · 만년전



다음 웹툰관 바로가기



카카오페이지 바로가기





